

#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77호 (2013-07) 발행일 : 2013. 02. 15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EU 국가의 출산율 및 가족 구조 동향과 시사점

최근 EU 국가의 출산율 회복은 과거에 출산을 미루어 왔던 여성들이 출산을 실현하고 있으며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내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수 만큼의 자녀 출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청되고 있음



신윤정 연구위원

### 1. 서론

-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EU 국가들은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유럽 국가 인구의 미래 – 도전에서 기회로(The Demographic Future of Europe – from Challenge to Opportunity)” 회의를 마련하여 회원국들 간의 공동 노력을 도모하고 있음<sup>1)</sup>
  -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아젠다로서 인구의 회복, 고용 확대, 생산성 증대, 이민자 통합, 재정적 지속 가능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함
  - 정책 결정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위하여 2006년부터 격년마다 EU 국가의 인구 현황을 제공하는 “유럽 인구 보고서(Demography Report)”를 작성하여 회원국들에게 배포하고 있음
- EU 국가의 출산율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미약하나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의 회복은 출산을 미뤘던 여성들의 출산 실현,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본 고에서는 2010년도 제3차 유럽 인구 보고서 중 EU 국가의 출산율과 가족 구조 현황 및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모색함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6), “Commission Communication, The Demographic Future of Europe – from Challenge to Opportunity”, 2006년 10월 12일에 채택

## 2. EU 국가의 출산율 동향

- 최근 EU 국가 인구 동향의 주요한 긍정적인 양상 중 하나는 출산율의 회복으로서, 유럽 27개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 수준은 2003년 1.47명에서 2009년 1.6명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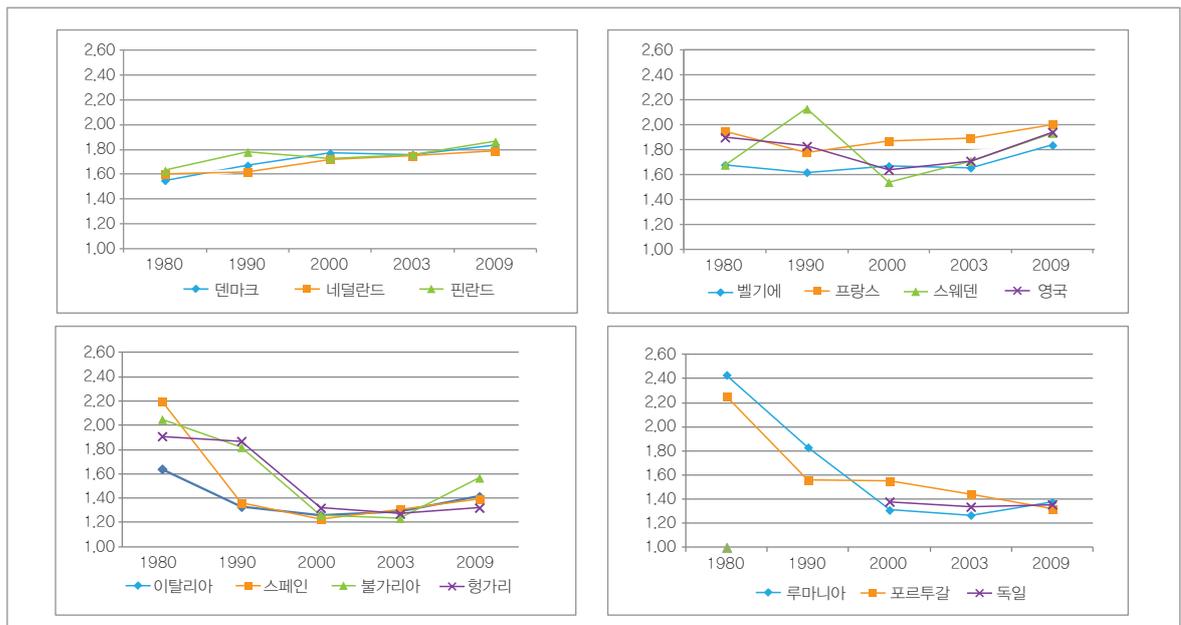
○ 여성 1명당 평균 1.3명 자녀를 보이는 초저출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유럽 회원국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음

- EU 국가의 출산율 회복은 인구 대체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기에는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지만 중기 혹은 장기 인구 전망 추이에서 인구 감소의 속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럽 국가의 출산율 회복 양상은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

- 첫째,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와 같이 복지 수준이 높은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둘째,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1990년대까지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상승 기조로 변화하였으며 2009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980년대 보다 높은 수준임
- 셋째,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남부 유럽 국가와 불가리아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약간의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넷째, 동유럽국가인 루마니아와 남부 유럽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는 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독일은 1.30명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별다른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음

[그림 1] EU 국가의 출산율 추이(198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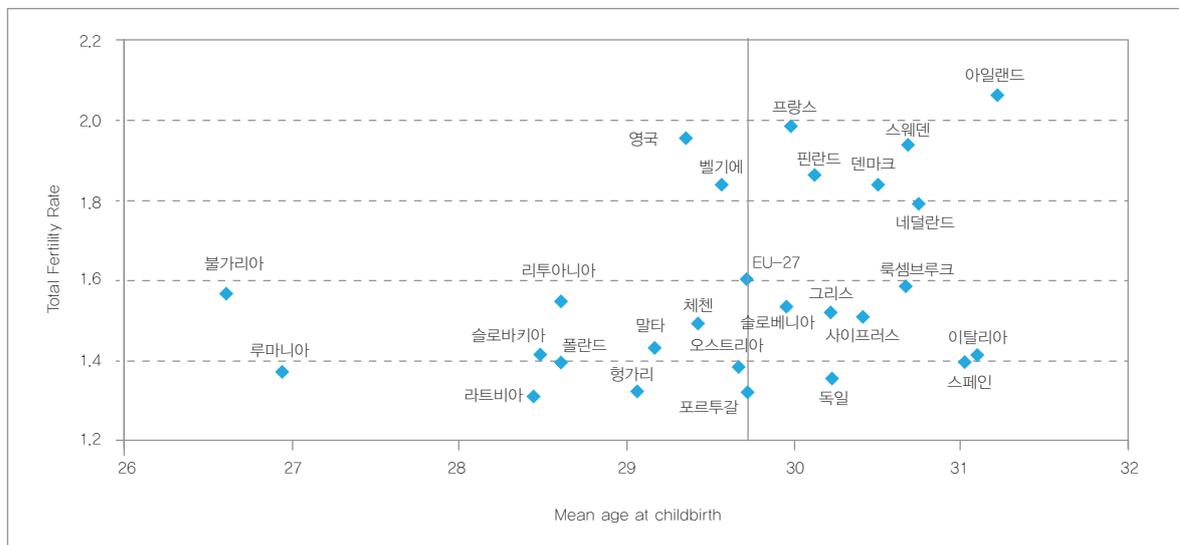
자료: Eurostat(2012)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 2009년 현재 EU 27개 국가의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은 29.7세로 평균 출산 연령이 30세 이상인 국가는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스웨덴 등 13개 국가임

○ EU 국가에서 출산율이 상승한 이유는 여성들이 자녀 낳는 시점을 미루다가 실현된 출산에 기인한 바가 크며  
 합계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여성의 자녀 출산 평균 연령도 높음

○ EU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과 평균 자녀 출산 연령을 평균점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결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가족 지원 정책이 발달한 국가에서 합계출산율과 자녀 출산 평균 연령이 모두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EU 국가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과 합계 출산율(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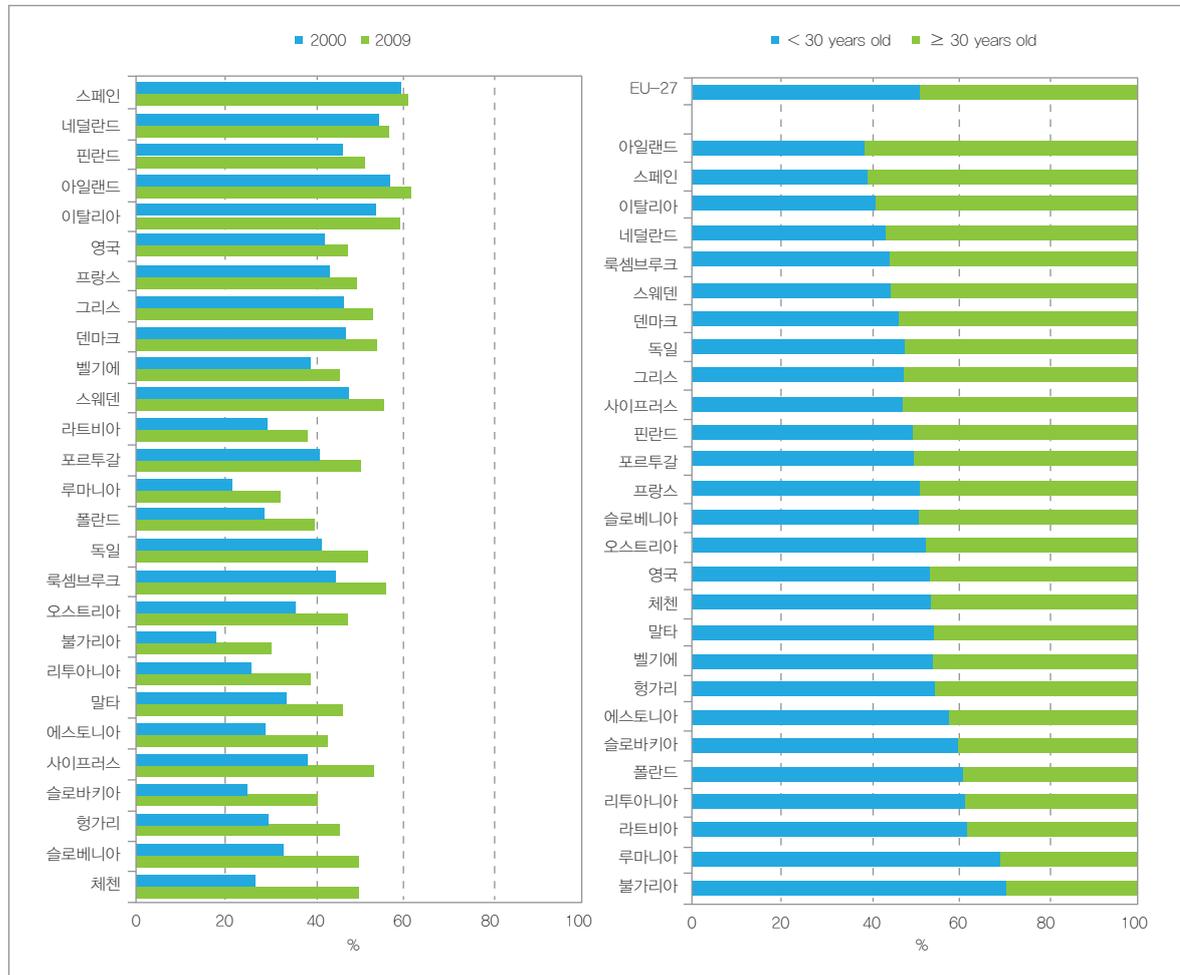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

- 1980년 이후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30세 이상 연령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어 과거 EU 국가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여성들이 출산 시기를 늦춘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과 비교하여 2009년에 모든 EU 회원국들에게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출산의 과반수 이상이 30대 이상 연령의 여성들에게서 이루어졌음

- 30세 이상의 여성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가 2009년 현재 EU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 반대로 슬로바키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30세 미만 여성의 출산이 전체 출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유럽 국가의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 비중 (2000,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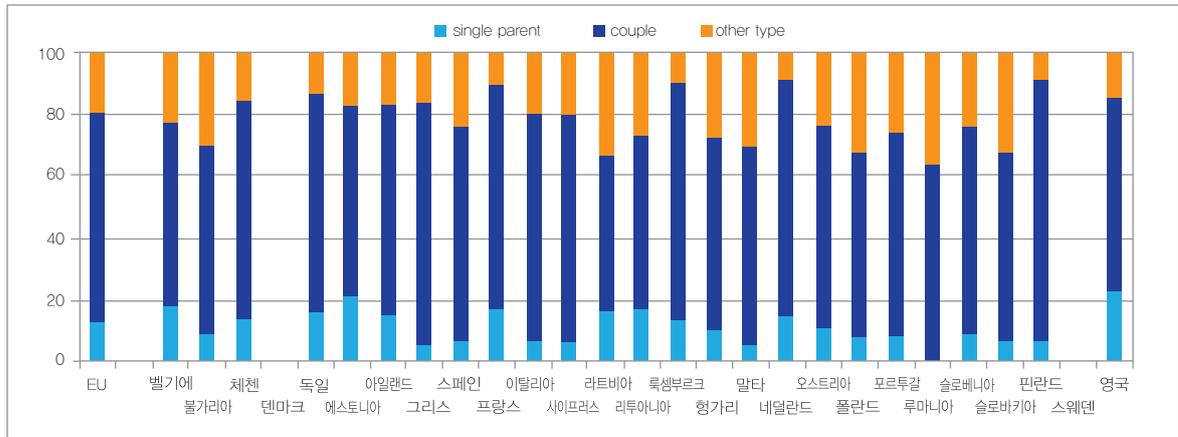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

### 3. EU 국가의 가족 구조 변화 동향

- EU 국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196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1세기 초반 출산율 상승 추이에도 불구하고 EU 27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5년 2.5명에서 2009년 2.4명으로 감소함
-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 가족 규모의 감소는 EU 국가 전반에 걸쳐 부부 가구 비중의 감소를 동반하고 있으며 비혼인 관계 및 한부모의 가족 형태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 EU 국가 전반에 걸쳐 전체 가구 중 부부 가구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어 유럽 평균적으로 2005년 29%에서 2009년 27.5%로 하락함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독거 노인의 증가에 따라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자녀와 손자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그림 4] EU 국가의 자녀가 있는 가구 유형별 분포(2009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

-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는 2005~2009년 사이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 20대 청년들은 과거 보다 빨리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있는 반면에, 30대 청년들은 부모와의 동거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현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은 25~29세의 경우 남성 41%, 여성 26%, 30~34세의 경우 남성 20%, 여성 11%임

-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이른 나이에 부모의 집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기 때문
- 25~29세 청년 중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은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에서 15% 혹은 그 이하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불가리아, 이태리, 말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55% 혹은 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문화적인 차이 혹은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청년들의 독립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

- Eurobarometer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청년들이 부모의 집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는 주거 문제, 노동 시장 문제(직업 안정성 문제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용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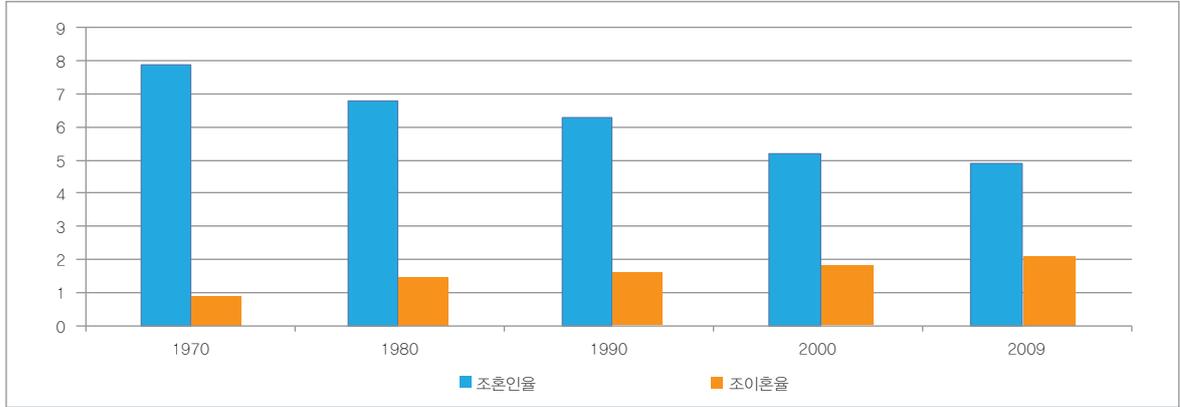
- 2008년 현재 고용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비중이 51.1%로 나타났는바, 이들 중 36%가 단기노동계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므로 나타남

## 4. EU 국가의 출산율과 가족 구조간의 관계

- EU 국가의 최근 출산율 회복은 가족의 변화에 의해 야기된 바가 크며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는 결혼의 감소, 동거혼 및 이혼의 증가, 혼외 출산 및 한부모의 증가 등이 포함됨

○ 유럽 국가 전반에 걸쳐 결혼 건수는 감소하고 이혼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970년과 2007년 기간 동안 조혼인율은 7.9건에서 4.9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이혼율은 0.9건에서 2.1건으로 상승하였음

[그림 5] EU 27개 국가 평균 조혼인율과 조이혼율(1970~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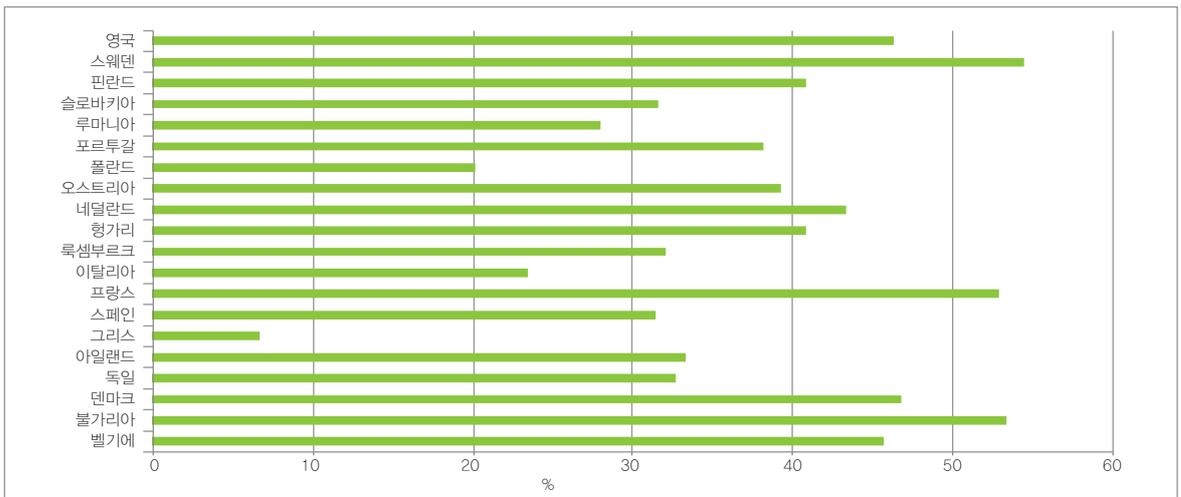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에서 재구성  
 주: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이며,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말함

○ EU 27개 국가 중에서 혼외 출산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한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전통적인 유형과는 별도의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혼외 출산은 거의 모든 EU 27개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에서 다수의 출생아가 혼인 외 관계에서 탄생하고 있음
- 반면에 지중해 연안 국가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말타와 동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에서는 여전히 출생아의 약 70%가 결혼한 관계에서 탄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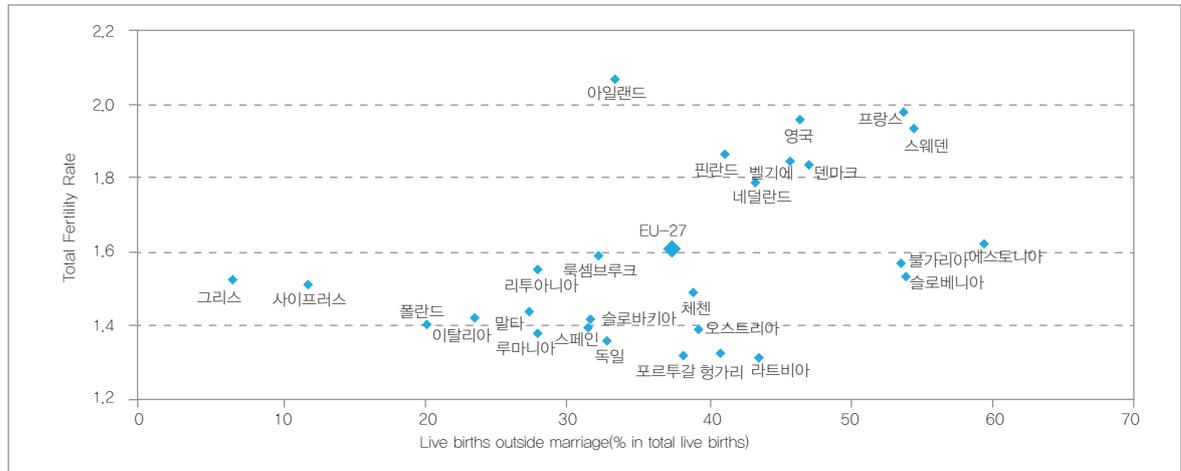
○ 전반적으로 볼 때 혼외 출산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 또한 높다는 특징이 발견되고 있음

[그림 6] EU 주요 국가들의 혼외 출산 비중(2009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에서 재구성  
 주: 혼외 출산 비중은 총 출생아 수 중에서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 수의 비중임

[그림 7] EU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과 합계 출산율(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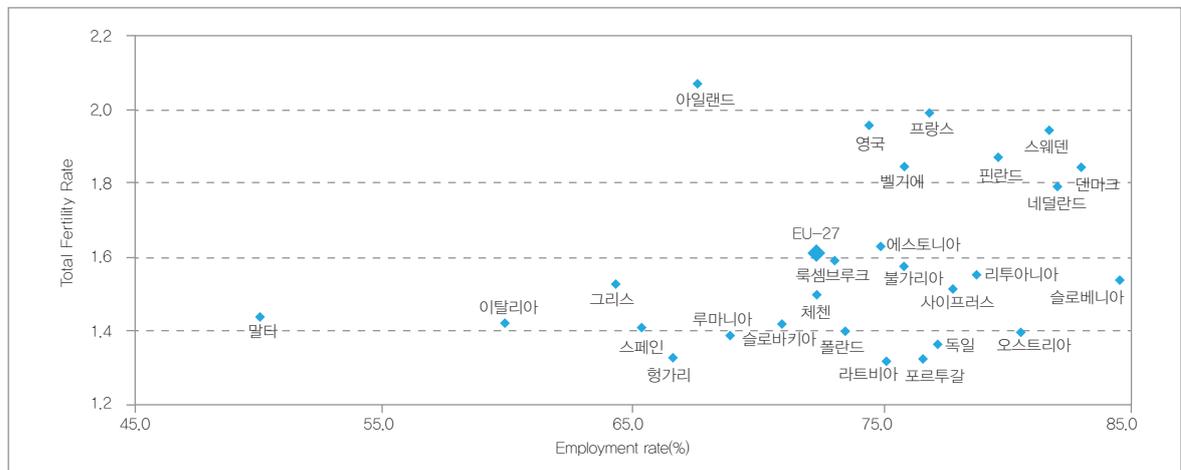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

- 1960년대 이래 유럽 국가의 가족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성 취업률의 향상으로서 과거와 같이 가족 기업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비중보다 가정 밖 특히 공공 부분에서 임금이 지불되는 취업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

○ 여성 취업률은 남성 취업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높은 여성 취업률을 보이는 회원국들이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8] EU 국가의 25~49세 여성 취업률과 합계 출산율(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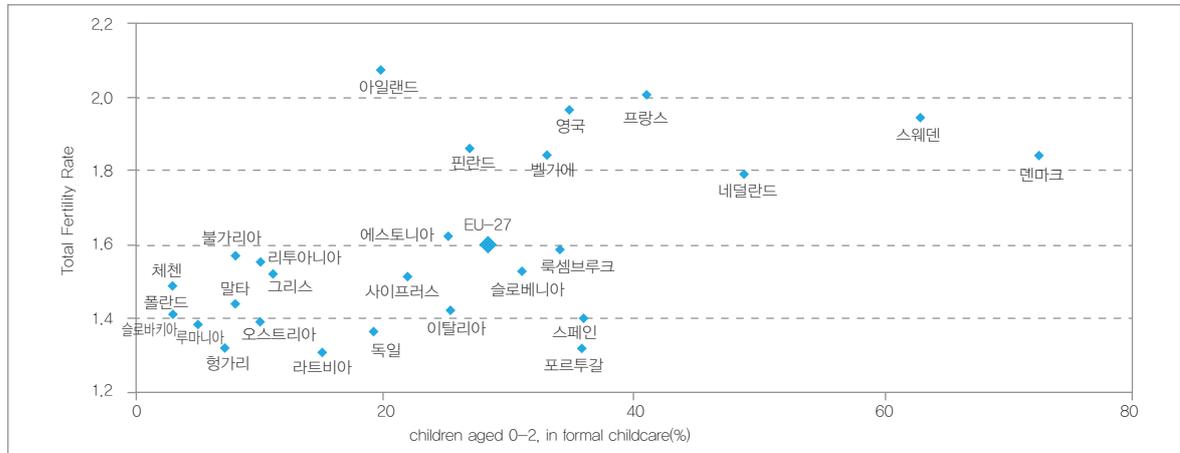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

- EU 국가 전반에 걸쳐 0~2세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합계 출산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EU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인 "Reproductive decision 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에서는 이상적인 출산율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으로 직업 안정성 강화, 양성 평등,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제시함

[그림 9] EU 국가의 0~2세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과 합계 출산율(2009년)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0) "Demography Report, 2010"

## 5. 시사점

-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수 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면할 수 있는 정책을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취업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가족 구조의 변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 등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때 출산율 회복이 기대될 수 있음
  - 가족의 변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은 출산율 회복과 더불어 최근 가족을 둘러싸고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집필자 | 신윤정(인구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문의 | 02-380-8137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122-70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